

앨도 레오폴드의 땅의 윤리 형성

—진화론적 생태의식*

김은성**

|| 차례 ||

1. 서론
2. 진화론에서 생태의식으로
3. 땅의 윤리-새로운 패러다임
4. 결론

[국문초록]

1949년에 출판된 앨도 레오폴드의 『샌드 카운티 연감』은 새로운 환경 철학과 윤리 시대를 알렸다. 레오폴드의 진화론적, 역사적, 그리고 생태학적 관점을 기반으로 형성된 땅의 윤리는 인간중심적 윤리에서 생태중심적 윤리로 윤리 규범을 변화시켰다. 땅의 윤리는 인간과 자연의 세계를 포함한 윤리적 구조에 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조하였다. 다윈의 진화론을 받아들이며서 레오폴드는 자연은 모든 구성원들 사이의 상호관계로 이루어진 역동적 공동체임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진화론적 생태 관점으로 인하여 레오폴드는 인간의 윤리 구조도 진화할 수 있고 반드시 진화해야한다고 주장한다. 땅의 윤리가 인간들이 땅을 남용하는데 어느 정도 제약을 줄 수 있지만, 더 나아가 인간과 자연과의 주인-노예의 관계에서 벗어나 인간은 단지 자연의 일부분일 뿐이라고 정의하면서 기존의 윤리 규범을 전복한다. 이러한 전복은 레오폴드의 생태적 의식에서 비롯되었는데, 자연에서의 진화적 그리고 생태적 연속성을 인식하면서 레오폴드는 자연의 미, 고귀함, 경이로움 등을 감지하게 된다. 그의 생태적 의식은 자연은 대상이 아니라 완벽한 주체임을 자신으로 하여금 체화하게 한다. 땅의 윤리는 인간 윤리의 진화 과정에서 다음 단계이며 지구범과 동물의 권리와 같은 새로운 윤리와 권리 운동의 기초가 되었다.

주제어: 앨도 레오폴드, 『샌드 카운티 연감』, 땅의 윤리, 진화론, 생태학, 생태적 의식, 윤리 패러다임

* 이 논문은 2018년도 고려대학교 글로벌비즈니스대학 특별연구비로 수행되었음.

** 고려대학교 글로벌비즈니스대학 영미학전공 교수. eunseong@korea.ac.kr

1. 서론

앨도 레오폴드(Aldo Leopold)는 그의 『샌드 카운티 연감』(*A Sand County Almanac*)의 「땅의 윤리」("The Land Ethic") 부분을 오디세이가 그의 노예를 죽이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오디세이는 트로이 전쟁과 힘든 여정 후 고향으로 돌아와 부정한 행실을 행했던 약 12명의 여자 노예를 맞췄을 때 달아 살해한다. 현재의 관점에서 상당히 비윤리적이라고 할 수 있는 장면을 「땅의 윤리」의 첫 부분으로 서술하는 것은 "옳고 그름에 대한 개념",("Concepts of right and wrong") "윤리의 구조"("the ethical structure") 그리고 "윤리의 확대"("extension of ethics")(201-2)라는 논점을 강조하려는 의도이다. 오디세이가 노예들을 죽일 수 있었던 것은 고대 그리스 시대에 '옳고 그름'이라는 개념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윤리의 범위가 '소유물'이었던 노예에는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의 상황과 윤리의 관점에서는 오디세이의 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다. 하지만 레오폴드는 이러한 오디세이의 비윤리성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는다. 오디세이의 행동은 오디세이 시대에서 윤리 적용 범위에 대한 기준을 명시할 뿐이다. 노예들은 그 당시에 소유물로 간주되었기에 이들의 '처분'은 "옳고 그름에 대한 개념"에서 벗어나 있다. 이러한 있는 그대로의 '역사적 사실'의 언급은 오랜 세월 동안 꾸준히 진행되어온 "윤리의 구조"의 변화와 "윤리의 확대" 즉, 윤리의 진화를 제시하고자 함이다. 그리고 결국 인간의 윤리 범위는 이제는 자연에게도 확대되어 자연을 위한 윤리체계를 확립하고 실천해야한다는 그의 주장의 시작점이다.

윤리적 판단의 기준 중 하나는, 비록 상대적이긴 하지만, '옳고 그름'에 관한 판단 기준이다. 레오폴드가 오디세이 시대에 노예는 소유물이었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소유물의 처분은 지금처럼 옳고 그름이 아니라 권리성의 문제"(201)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윤리의 적용 범위를 자연으로 확대하려는 전

략이라 할 수 있다. 캘리코트(Callicott)가 지적하듯이, 이 오디세이 일화는 “오늘날 땅은 예전보다 더 일상적으로 그리고 비참하게 인간에게 예속화되어 있다는 점을 암시하는 요점”으로 이어진다 (“Conceptual” 187). 인간의 윤리 체계가 시대가 변하면서 범주 대상을 확대해왔듯이, 이제는 그 범주를 자연으로 확대해서 자연을 포함하는 윤리체계의 표준과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땅의 윤리”의 시작점이다.

그러면 레오폴드는 왜 그리고 어떻게 자연을 윤리 범주에 포함시키려고 하였을까? 기본적으로는 산림학자로서 레오폴드의 자연에 대한 지식과 생태학적 이론, 자연사 연구, 진화론적 관점, 그리고 자신의 생태의식 형성과 발전 등이 결합하여 ‘땅의 윤리’가 형성되었다. 또한 서부개척으로 대표되는 진보의 재정의 그리고 경쟁보다는 공존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윤리도 기반이 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관점을 바탕으로 땅의 윤리라는 새로운 윤리 체계와 범주가 어떻게 형성되었고 확대되었는지 고찰해보고자 한다.

2. 진화론에서 생태의식으로

『샌드 카운티 연감』이 출판된 후 이 책과 레오폴드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나왔다. 대부분의 평가는 그가 미국 동시대에 새로운 생태의식을 제시했다는 점으로 귀결한다. 한편, 레오폴드의 새로운 윤리 개념 설정에 대한 평가도 볼 수 있는데, 아래 티모씨 클라크(Timothy Clark)의 평가가 대표적이다.

레오폴드의 『샌드 카운티 연감』은, 근대 서양문학에서 지구 자연 전체를 그리고 하나의 전체로서의 지구 자연을 도덕 범주에 포함시키려는 윤리 이론을 발전시키려는 첫 번째 자의식적이며, 지속적인 그리고 체계적인 시도로 평가되고 있다. (77)

위 인용문에서 우리가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구절은 ‘지구 자연 전

458 국제언어문학 제41호(2018.12.)

체’(the whole of terrestrial nature), ‘하나의 전체로서의 지구 자연’(terrestrial nature as a whole), 그리고 ‘도덕 범주’(purview of morals) 등이다. 이 세 구절은 각각 자연의 진화, 새로운 생태의식, 그리고 인간의 도덕적 범주 확대에 해당하며, 이 관점들이 모여서 ‘땅의 윤리’가 형성된 것이다.

레오폴드가 인류 즉, “호모사피엔스의 역할을 땅이라는 공동체의 정복자에서 단순한 구성원과 시민으로 전환하는 것”이 “땅의 윤리”(204)이라고 언급했을 때 이는 땅의 윤리의 근원적인 지향점을 밝힌 것이다. 이 발인은 그의 생태의식에 기반하고 있는데, 이 의식은 레오폴드의 자연 역사에 대한 숙고에서 나온 것이다. 자연 역사에 대한 관심은 산림학자로서의 지식 추구 외에도 자연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에서 비롯되었다. 경제적 또는 관광객 관점이 아니고 생태의식적 관점에서 자연을 관찰하기 때문에 그가 자연에 들어갈 때 는 때때로 경건한 의식이 된다.

이러한 메일의 의식(ceremony)은 최대한의 예의바름으로 시작된다. 새벽 3 시 30분이면, 7월의 아침에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위엄을 갖추고, 양손으로 나의 영유권의 상징인 커피 잔과 공책을 들고 오두막을 나선다. 벤치에 앉아 새벽 별의 하얀 자취를 마주한다. [...] 시계를 꺼내고, 커피를 따르며, 무릎 위에 공 책을 놓는다. 이것이 시작을 알리는 신호다. (41-42)

경건한 의식을 연상시키는 관찰을 통해 레오폴드는 자연의 객관적 사실을 탐구하면서 동시에 자연의 독자적이면서 유기적인 질서와 현상을 상상한다. 레오폴드는 상상을 통해 자연의 현재 모습을 역사의 과정으로 생각한다. 그가 이 책에서 ‘역사’(history)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한 이유는, 단순히 자연사 관점에서 자연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자연의 유기적 총체성은 자연 역사의 산물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2월」(February)이라는 에세이에서 들뜬에 쓰러진 거목을 정리하기 위하여 톱질을 할 때 레오폴드는 이 작업에 역사를 투영한다. 커다란 거목의 몸체를 곁에서 안 쪽으로 톱질을 하면서, 각 나이테가 상징하는 년도인 1930년대 후반부터 시작하여 거

의 1865년 경 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서, 각 해에 일어난 사건들을 기술한다. 이 사건들에는 밀주 금지법, 대공황과 같은 인간의 역사와 함께 자연의 역사가 포함된다.

그러나 거목을 통해 나타난 자연의 역사는 인간이 자연에 개입하면서 어떻게 황폐화 시켰는지를 보여준다. 밀주업자들이 사업을 위해 초원과 농장을 불태우고, 인간 문명이 확장되면서 늪지가 줄어드는 상황들이 묘사되고 있지만 특히, “1875년에, 4명의 사냥꾼이 야생 닭 153마리를 죽였다,” “1874년에는, 최초로 공장에서 만든 철조망이 참나무 들에 쳐졌다,” “1872년에는, 최후의 위스콘신 야생 칠면조가 사냥으로 죽었다.”(14)와 같은 짧은 문장들의 연속은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명징하게 드러낸다. 이러한 고통과 죽음의 과정에서 거목은 마치 시대의 아픔을 묵묵히 견뎌낸 역사의 증인과 같은 존재이기에 이 나무의 죽음은 아련하지만 이 또한 역사의 과정이다.

이 오래된 나무의 상실을 애도하지만, 미래 땅위에 일직선 그리고 굳건하게 서 있는 이 나무의 후손들은 이미 숲을 이루어가는 각자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9)

자연에서는 한 존재의 상실 또는 죽음은 거기서 끝이 아니라 다른 존재들의 탄생으로 연속되어진다. 따라서 이 거목은 자연 역사의 과정 그 자체의 상징이 된다.

『샌드 카운티 연감』에서 레오폴드의 자연 역사 탐구는 지질학과 생태학적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 관점에서 탐구는, 객관적인 과학 지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동시에 자신의 상상력도 동원된다. 상상력을 통하여 레오폴드는 아주 오래 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현재로 다시 돌아온다. 이 시간의 여정에서 그는 시간과 공간 그리고 모든 종에 대한 더 깊고 더 넓은 관점을 체화하고 보여준다. 그에게 현재는 이러한 역사의 중첩이다. 레오폴드는 초원은 모든 동식물들의 다양성으로 존재한다고 하면서 “모든 동식물들의 상호협조(co-operations)와 경쟁(competitions)의 최종 합이 (초원의) 연속성을 획득했다”고(107) 이야기 하는데, 여기서 그의 자연 역사에 대한 관점은 진화

460 국제언어문학 제41호(2018.12.)

의 개념과 결합된다. “상호협조”와 “경쟁”은 진화의 가장 근본적인 개념이다. 레오폴드에게 자연의 역사는 진화의 역사와 거의 동일하다. 현재가 진화 역사의 중첩이자 끝없는 진화의 기반이 된다. 단 한 그루의 나무도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진화의 증인이 된다.

참나무 노복을 소유하고 있는 농부는 단지 한 그루 나무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 그는 역사에 관한 도서관과 진화라는 극장의 예약된 좌석을 소유한다. 눈썹이 가 있는 사람은 그의 농장을 초원의 전쟁의 휘장과 상징으로 규정한다. (30)

한 그루의 참나무 노복은 단순히 초원에 서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곳에서의 전쟁 즉, 상호협조와 경쟁이라는 진화의 과정에 참여한다. 그런데 위 인용문에서 중요한 점은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이다. 레오폴드는 진화라는 드라마의 주인공은 자연이며 인간은 관객일 뿐이라는 점을 암시한다. 자연은 진화의 과정을 스스로 관장하는 엄연한 주체이며, 인간은 마치 좌석에 앉아 드라마를 보는 관객처럼 자연을 응시하는 존재일 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레오폴드는 『샌드 카운티 연감』에서 자연에 대한 인간의 간섭과 관여를 자주 비판한다.

한 지역의 생태계는 지질학적 변화와 모든 생명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 오랜 과정이 『샌드 카운티 연감』에서 다음처럼 답답하게 묘사되고 있다.

태초부터 시간은 에스쿠딜라의 거대한 현무암 덩어리를 침식시키고, 조금 멀췌다가 또 무언가를 만들어냈다. 시간은 이 오래된 산에서 장엄한 풍경, 작은 동 물과 식물의 공동체, 그리고 회색곰 세 가지를 만들었다. (136)

위의 짧은 인용문에는, 장대한 시간의 과정을 거친 지질학적 변화, 인간의 시선을 압도하는 장엄미, 작지만 미묘한 생명들의 세계, 그리고 회색곰으로 상징되는 당당함이 압축적으로 드러난다. 인간의 인식을 뛰어넘는 자연의 역사와 진화 과정에 인간이 간섭하는 모습은, 이 인용문 후에 목축업에 피해가 된다는 이유로 회색곰을 죽이는 장면에 나타난다. 사냥하는 방법, 사냥 후 당

당한 꿈을 처리하는 장면은 꿈에 대한 아주 모욕적이고 비윤리적인 태도로 묘사된다.

꿈 사상에 관한 이야기는 『샌드 카운티 연감』의 「산처럼 생각하기」(Thinking Like a Mountain)의 한 부분이다. 선불교의 화두를 연상시키는 ‘산처럼 생각하기’는 간단히 요약하면 생태학적으로 생각하기이다. 산은 단지 바위 덩어리가 아니라 거기에서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의 공동체이다. 오랜 동안의 역사과정에서 형성된 생태 공동체는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여기에 인간의 간섭 즉, 인간중심적인 목적으로 꿈을 죽이는 것은 “제한된 역사의식을 가진 자아 중심적 존재에 의해 저절러진 치명적인 오류이다”(Tallmadge 125). 레오폴드는 인간의 제한된 역사의식과 자연의 무한한 역사과정을 대조하기 위하여 『샌드 카운티 연감』 곳곳에서 인간의 인지와 언어의 한계를 강조한다. 자연은 결코 인간의 인지 능력으로 완전히 포착될 수 없기에 언어로도 정리될 수 없다. 다시 말하자면, 인간은 진화의 드라마의 예약된 좌석만 소유할 뿐이고, 자연은 무궁무진한 정보를 담고 있는 역사에 관한 도서관이다.

「산처럼 생각하기」에 드러난 생태의식은, 도널드 워스터(Donald Worster)가 지적하는 것처럼, “자연의 역사를 전체론적인 공감(holistic sympathy)과 결합하려는 레오폴드의 이상에 가깝다”(289). 자연의 역사 과정에서 형성된 자연의 생태는 자연 스스로 이룬 결과이기에 때로는 인간과의 관계에서 타자적으로 존재한다. 이러한 자연 생태는 인간이 전체론적인 공감으로만 인식할 수 있다.

이러한 장소에는 두렵고 무거운 시간의 의식이 놓여 있다. 이 지역은 병하 시대 이후로 해마다 두루미들의 소리로 깨어있다. 이 늪지를 구성하는 토탄층은 오래된 호수 바닥에 누워있다. 두루미들은, 그랬던 것처럼, 흠뻑 젖은 자신들의 역사 한 페이지 위에 서있다. 이 토탄층은, 습지 물을 막고 있는 이끼, 그 이끼 위에 펼쳐진 낙엽송, 빙하기가 끝난 후 낙엽송 위에서 울던 두루미들의 흔적이 압축되어 형성되었다. 셀 수 없는 세대들의 행렬이 자신들의 빠른 미래로 향하는 이 다리, 앞으로 다가 올 세대들이 살고 새끼를 키우고, 죽을 서식지를 만들었다. 무슨 목적을 위해서일까? 운 없는 개구리를 삼키면서 두루미는 불품없게

462 국제언어문학 제41호(2018.12.)

부품 모습으로 습지를 날아 거대한 날개로 대기 속으로 뛰어오르며 아침 태양을 가른다. 낙엽송은 두루미의 소리를 다시 메아리친다. 두루미는 아는 것 같다. (96)

위 인용문에는 지질학적 변화, 시간과 진화의 역사, 그 결과인 현재, 그리고 미래에서의 계속성이 낭만적으로 잘 묘사되고 있다.

레오폴드는 이 인용문 뒤에 두루미의 흰 존재를 “진화의 오케스트라에서의 [두루미의]트럼펫 소리”(96), “그들의 존재는 제한된 현재가 아닌 진화적 시간이라는 더 넓은 범위에 있다”(97)라고 부연한다. 이 구절은, “무슨 목적을 위해서일까?”(“To what end?”)라는 구절과 함께 아주 길지만 담담한 시간과 공간의 역사, 특히 두루미, 습지, 그리고 그것들 사이의 관계로 상징되는 역사과정에서의 자연의 다양한 관계는 인간이 완전하게 인지하고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나타낸다. 낙엽송이 두루미 울음소리를 다시 메아리 치고 두루미는 다시 그 소리를 아는 것은 ‘산처럼 생각하기’와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이 위 인용문을 비롯한 『샌드 카운티 연감』에서 레오폴드는 진화라는 과학적인 개념으로 자연의 역사를 서술하지만 이러한 인간적인 한계로 인하여 ‘전체론적인 공감’ 또는 ‘전체론적인 마음 상태’로만 자연을 그리고 인지할 뿐이다.

레오폴드의 자연의 역사, 특히 진화론에 대한 관심과 전체론적인 공감에서 그의 새로운 생태의식이 형성되었다. 그가 다윈이 종의 기원을 소개한 이후 인간이 체득한 것은 “생물들의 기획(biotic enterprise)의 규모와 지속성에 대한 경이감”(109)이었다고 주장한다. 레오폴드가 두루미 늪지에서 느낀 것은 오래된 시간과 공간의 역사 과정에서 형성된 이러한 경이감과 고귀함이었다. 이러한 경이감과 고귀함은 언어로 설명할 수 없지만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키며 때로는 압도하기도 한다. 또한 타자에게서 느끼는 경이감과 고귀함은 그 타자의 존재에서 우러나오는 것인 만큼 그 존재에 대한 최소한의 존경은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자연에 대한 레오폴드의 윤리의식은 이러한 존경에서 시작한다.

3. 땅의 윤리—새로운 윤리 패러다임

자연의 경이감, 고귀함, 그리고 그에 따른 존경 못지않게 레오폴드가 다윈의 진화에서 깨달은 중요한 사실은 “자연에서 인간의 위치에 대한 전체론적인 수용(holistic conception)”(Fritzell 141)이다. 레오폴드는 다윈의 진화론을 통해 그동안 인간들이 알지 못했던 다음의 사실을 이제 알게 되었다고 직접 언급한다.

인간들은 진화라는 긴 여정에서 다른 생명체와 함께하는 동반 항해자일 뿐이다. 이러한 새로운 지식은 이제 우리에게 동료 생명체와의 동족관계의식을 그리고 살고자 또는 살게 하는 바램을 부여해야한다. (109)

오랫동안 고착해왔던 인간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탈-인간중심주의적 사고로 전환하는 것은 오랜 인간 중심의 역사와 공간 개념에서 자연 중심의 역사와 공간 개념으로 전환하는 사고 혁신에서만 가능하다. 레오폴드 자신의 사고 전환은 『샌드 카운티 연감』에 잘 드러나 있지만, 그 자신의 학자와 공적 자로서의 경력에서도 볼 수 있다.

로렌스 뷔엘(Lawrence Buell)이 지적하듯이, 『샌드 카운티 연감』에 나타난 레오폴드의 모습은 “비번의 전문가(off-duty expert)” 그리고 “기묘한 경험 탐구자(quizzical experimenter)”의 두 가지 “페르소나(persona)”로 나눌 수 있다 (173). 이 두 가지의 페르소나는 산림학을 전공한 전문가가 객관적인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자연을 관찰하면서 동시에 과학으로는 완전히 이해 또는 인지할 수 없는 영역을 탐구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실제로 레오폴드는 생태학자 이전에 산림학자였으며 미국 초대 ‘산림청장’이었던 기포드 핀쇼(Gifford Pinchot)와 함께 미국의 산림정책을 계획하고 집행하였다¹⁾. 핀쇼는

1) 캘리코트(Callcott)는 레오폴드의 경력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레오폴드는 『샌드 카운티 연감』 저자 이상이었다. 그는 또한 『사냥 동물 관리』(Game Management), 많은 전문 학술논문과 보고서의 저자, 야생 관리(wildlife management)에 관한 규칙 제정자, 영향력 있는 야생 보호의 대변자, Wilderness

464 국제언어문학 제41호(2018.12.)

미국 루스벨트 정부에서 초대 산림청장을 역임하면서 자연, 정확하게 말하면, 자원으로로서의 자연의 효율적이며 공정한 관리를 주장했다. 그는 그의 대표 저서 『보존을 위한 투쟁』(The Fight for Conservation)에서 자연의 효율적 관리의 목적은 모든 국민들 그리고 후손들을 위한 기회와 분배의 정의와 평등이며, 이는 민주주의적 공동체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라고 주장한다.

핀쇼는 자연 보호를 제도화 및 법률, 그리고 정책으로 확립하여 했다. 이는 “자연자원이 행복과 번영의 근거라고 생각하는 핀쇼에게 자원의 합리적 관리는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는데 가장 중요한 방법”(김은성 81)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그의 저서에서 “보호에 관하여 가장 중요한 사실은 보호가 계발을 의미한다”(25)고 주장한다. 소수의 특권층이 자연 또는 자연자원을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고 후손들까지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속적인 개발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었다. 핀쇼에게 자연은 최대의 사람에게 최대의 선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였다. 따라서 핀쇼는 자연보호 정책을 모든 국민과 후손에게 기회의 균등, 지속적인 발전, 동등한 부와 번영, 그리고 평등을 보장하고 지속시킬 수 있는 정치적 프로그램이었다. 핀쇼의 자연보호주의와 정책은 자연의 무분별한 개발과 남용을 방지하는데 기여하였지만, 자연을 도구적 수단으로 인식한 만큼 인간중심적 자연관이라는 근원적인 한계를 드러냈다.

핀쇼 학파(school)의 일원이었고 야생 관리 분야의 선구자였던 레오폴드의 자연관은 핀쇼의 도구적에서 생태학적 자연관으로 변화하였다. 레오폴드는 “본질적으로 자연보호에 대한 실용적 접근에서 생태학적 접근으로 전이하는 시기의 중간적 세대(middle generation)에 속한다”(Worster 284). 『샌드 카운티 연감』의 「땅의 윤리」 부분에서 자연을 경제적인 관점으로 보고 경제적 관점으로 자연을 평가하는 것에 대한 비판은 레오폴드의 자연관 전이의 결과를 보여준다. 레오폴드의 생태의식의 전환은, 위에서 밝힌 것처럼, 기본적으로 자연의 역사, 진화론의 영향, 그리고 전체론적인 공간과 인식 등에 기인한다. 그런데 레오폴드의 동시대인들, 특히 레이첼 카슨(Rachel Carson)과

Society’의 공동 설립자, 지명한 자연 보호주의자, 전문적인 산림학자, 대학교수였다”(“Introduction” 5)

비교해 보면 레오폴드의 자연관 변화는 전체론적인 공감과 인식이 더 근원적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침묵의 봄』(Silent Spring)에서 칼슨은 자연의 존재와 변화 양식을 진화론적 역사 관점으로 설명하고 환경파괴와 생태계 교란은 인간의 무차별적인 개입이라는 것을 경고한다. “지상의 생명의 역사는 생물체와 그 주위 사이의 상호작용(interaction) 역사 일”(5)을 강조하고, 계속해서 진화과정의 시간과 그 시간에서의 생명체들의 존재, 적응, 발전 과정을 설명한다.

현재 지구상에 거주하는 생명을 생산하는데 수 십 억년의 시간 즉, 생명을 발전, 진화 그리고 다양화하는 과정이 환경에 적응하고 균형의 상태에 도달하는데 영겁의 시간이 걸렸다. (6)

이 설명에는 레오폴드가 진화의 과정을 “상호협조”와 “경쟁”이라고 주장한 것과 같은 의미가 암시되어 있다. 그러나 칼슨에게 긴급한 사안은 진화로 형성된 자연에 살충제로 상징되는 인간의 무차별적인 개입이었다. 따라서 칼슨은 진화의 산물인 자연의 총체를 체화하는 것 보다 이 질서의 파괴에 대한 경고에 집중한다. 『침묵의 봄』 제 1장에서 칼슨은 인간의 만든 과수원과 농장, 전원적인 마을과 같은 전경(landscape)이 자연의 풍요로움 그리고 아름답고 잘 어울리는 소위 목가적 전경(pastoral landscape)을 상상하면서, 인간의 살충제의 무분별한 살포에 의해 파괴될 것이라는 두려움을 예언한다.

최소한 『침묵의 봄』에서 칼슨이 원하는 세계는 다시 새가 돌아와 풍성한 숲에서 노래를 부르는 자연과 인간 세계와의 조화로운 공간이었다. 이는 칼슨이 진화의 결과인 생태계 공동체의 복잡한 내부 질서 자체까지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살충제의 오용과 남용에 대한 칼슨의 경고는 전 세계에 살충제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 환경 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에 비해 진화론에 대한 레오폴드의 관심은, 위에서 언급한 전체론적인 인식과 공감으로 연결되었고 이는 다시 그의 새로운 생태학적 인식과 의식 형성에 이르게 되었다. 그는 진화론의 표면적 사실에 머무르지 않고 오래 축적된 과정을 마음으로 공감하면서 땅에 대한 윤리를 다져가고 있었다.

466 국제언어문학 제41호(2018.12.)

레오폴드의 진화론에 관한 지식이 생태의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샌드 카운티 연감』 곳곳에 나타난다. 『샌드 카운티 연감』의 「자연 보호의 미학」(Conservation Esthetic) 에세이에서, 레오폴드는 인간 개인이 “땅과 그 위에서 살고 있는 생명체들이 그들만의 특징적인 형태를 갖게 되고 (진화) 자신들의 존재를 유지해해 나가는 (생태학) 자연의 과정에 대한 인식”(173 괄호는 원저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생태학은 자연의 생태를 연구하는 학문이지만, 레오폴드는 생태학을 마음의 영역으로 심화시킨다. 인간이 자연에서 얼마나 훌륭한 것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연의 훌륭함을 바라보는 “마음의 눈 (mental eye)” 또한 매우 중요함을 이야기하면서 생태학과 마음의 눈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생태과학은 이 마음의 눈에 변화를 일으켰다. 생태학은 분(Boone)에게 단지 사 실이었던 것들의 기원과 기능을 드러냈다. 생태학은 그에게 단지 속성이었던 것들의 역할관계를 밝혔다. [...] 분은 단지 사물의 겉모습만 보았다. 식물과 동물 공동체의 믿을 수 없을 만큼 복잡하게 뒤얽힌 구조, 그리고 미국이라고 불리는 유기체의 본질적인 아름다움은, 오늘날 속물들만큼 다니엘 분에게는 파악하거나 이해할 수 없었다. (174)

미국 초기 개척자이자 모험가였던 다니엘 분의 시기의 생태의식과 동시대의 생태학의 도움으로 터득한 새 생태의식을 비교하면서, 레오폴드는 자연의 표면적 사실과 현실을 넘어 자연의 본질적 역할관계를 깨닫게 된다.

생태학은 인간에게 자연에 관한 객관적인 지식을 제공하였지만, 레오폴드에게는 인간의 인식과 이해 능력, 언어의 표현 한계를 넘어선 자연의 ‘전체론적인 범주’ 그리고 ‘전체론적인 인식’을 제공한다. 생태학이 부여한 ‘마음의 눈’은 자연의 표면적 사실 보다 더 깊숙이 들어가 자연의 경이로움, 고귀함, 본질적인 아름다움을 깨닫게 한다. 또한 진화론과 함께 자연의 공동체는 상호관계 속에서 수없이 일어난 복잡한 이야기들로 구성된 역동적 균형상태의 존재로 다가온다. 이러한 의미에서 레오폴드의 생태의식은 “자연은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관한 우주발생론적인 의미(cosmogonic sense)”

와 “자연은 어디로 진행해야 하는지에 관한 목적론적인 의미(teleological sense)”(Fritzell 145) 모두를 포함한다. 이러한 거시적 관점에서 자연에서의 인간의 위치는 재조정되는 것이다.

자연의 존재와 운영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질서는 먹이사슬(food chain)인데, 레오폴드는 처음에는 단순했던 먹이사슬의 피라미드는 “진화를 거듭할수록 층(layer)위에 층이, 연결(link)위에 연결이 더해졌으며, 인간은 피라미드의 높이와 복잡성에 더해진 많은 축적들 중에 단지 하나이다”(215-216)라고 주장한다. 이 문구는 자연의 주체성과 인간중심적 사고의 해체를 강조한다. 또한 자연의 경이로움, 본질적 가치 그리고 우열관계가 없는 고유한 삶의 방식에 대한 인식은 자연을 소유물이 아닌 존경과 존중의 대상으로 여기도록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샌드 카운티 연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자연의 깊은 내면의 의미, 아름다움, 그리고 가치를 자신의 자아 내면에서 끌어내는 레오폴드의 감수성이다. 이 감수성은, 진화론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의 새로운 생태의식과 함께 레오폴드의 자연에 대한 윤리의식을 형성하였다.

과학적 사실, 새로운 생태의식, 그리고 감수성의 연결이 레오폴드의 윤리의식의 기반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그의[레오폴드] 인생에서 그는 감정(emotion)과 이성(reason) 사이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는데, 「땅의 윤리」(“The Land Ethic”)는 이러한 관계를 보여주는 궁극적인 증거였다”(Meine 172). 땅으로 대표되는 자연에 대한 윤리는 옳고 그름이라는 단순하면서 기본적인 윤리적 기준 또는 규범을 바탕으로 형성 되었지만, 레오폴드의 자연에 대한 윤리 의식과 태도는 생태학적이다.

윤리의 확대는, 지금까지는 철학자들만이 연구 하였지만, 사실은 생태적 진화 과정의 부분이다. 이 연속과정은 철학적 용어 뿐 아니라 생태적 용어로도 설명될 수 있다. 생태적으로, 윤리는 생존 투쟁을 위한 행위의 자유에 가해지는 제약이다. 철학적으로는, 윤리는 반사회적 행동으로부터 사회적 행동을 구별하는 것이다. 이 두 정의는 한 종류에 대한 두 가지 정의이다. 이 것은 상호협력의 방식을 발전시키기 위해 개인이나 집단들이 서로 의존하는 경향에 그 기원이 있다. 생태학자들은 이것을 공생이라고 한다. 정치와 경제는 발전된 공생관계인데, 이 관계에서 원래의 무한 경쟁체제가 윤리적 내용이 있는 상호협조적 구조

468 국제언어문학 제41호(2018.12.)

로, 일 부분이긴 하지만, 대치되었다. (202)

그리고 이후에, “레오폴드는 인간과 자연과의 범위까지 윤리를 확대하는 것은 진화적 가능성과 생태적 필수이다”(203)라고 강조한다.

위의 다소 긴 인용문의 핵심은 인간의 윤리 의식과 도덕은 생태계처럼 진화할 수 있으며 진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먼저, 윤리의 발전을 생태 진화론적 관점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이 이 인용문에는 “생태학”, “진화(evolve)”, “기원(origin)”, 그리고 “공생관계(symbioses)” 등과 같은 진화론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용어와 위에서 언급한 오디세이의 일화는 모두 ‘옳고(right)’, ‘그름(wrong)’의 개념(생태계에서는 옳고 그름의 판단은 그 자체가 성립될 수 없지만)은 상대적이며, 생태계에서처럼 시대와 사회에서 변화가 있을 때마다 윤리도 그에 상응하면서 변화해 왔음을 암시한다. 또한 무엇보다도, 레오폴드가 생태 진화론과 인간 윤리의 발전을 연관시키는 것은 자연의 질서에서 배운 교훈으로 인간 윤리의 속성과 기준을 향상시키려는 의도이다.

레오폴드가 생태학과 진화론에서 배운 교훈은, 자연의 모든 구성원들은 본질적인(intrinsic) 권리, 특히 인간의 실용적 관점과 관계없이 생물학적 권리(biotic right)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생태학적으로 동등하다는 자연 원리이다. 이러한 각 구성원들이 “경쟁”과 “상호협조”라는 진화과정 속에서 공동체를 형성한다. 그런데 “상호협조”는, 위 인용문에서 언급한 “생존 투쟁을 위한 행위의 자유에 가해지는 제약이다”라 할 수 있다. 자신의 생존을 위해 경쟁을 해야 하지만, 이기적인 생존 투쟁은 공동체를 약화시킬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것을 양보해야 하거나 해야만 한다. 이러한 속성은 “상호협조”이라는 관계로 구현된다. 경쟁과 상호협조는 각 구성원들 사이의 상호의존(interdependent) 관계라고도 할 수 있다.

레오폴드는 윤리의 진화과정을 상호의존 관계를 기반으로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으로 보았다.

지금까지 모든 윤리는 한 가지 전체에서 진화했다. 즉 모든 개인은 상호의존하는 부분들이 형성한 공동체의 한 구성원이라는 점이다. 각 개인의 본능은 공

동 체에서 자신의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도록 자극하지만, 개인의 윤리는 또한 상호협조 하도록 촉구한다. (203-204)

윤리는 개인 자신의 영역이라기보다는 다수간의 관계 또는 공동체에서의 덕목이다. 레오폴드는 구성원들 사이의 적절한 긴장과 협조 관계로 자연 공동체가 형성되고 유지되듯이, 인간의 윤리도 구성원들의 적절한 긴장과 협조 관계로 원활한 공동체의 형성과 유지를 위해 발전해왔다고 보고 있다. 자연이라는 공동체가 계속 유지되기 위하여 끊임없이 변화하고 진화해왔듯이, 인간사회를 유지하는 원리 중 하나인 윤리도 그렇게 변화하고 발전해야 한다.

공동체 형성과 유지를 위한 윤리의 발전은 결국 인간 윤리 범주 확대에 관한 레오폴드의 주장으로 이어진다. 공동체의 성격과 모습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게 되고, 그에 따라 인간의 윤리도 변화해야 한다. 레오폴드는 지금까지 윤리 적용의 대상과 범주는 인간 세계로 한정되었지만 이제는 그 대상과 범주를 자연까지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자연 파괴에 대한 우려와 자연의 경이로움에서 비롯되었지만, 윤리의 진화과정 관점에서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땅의 윤리”는 바로 이 윤리의 진화과정의 다음 단계가 되는 것이다. 이 단계를 레오폴드는 “땅의 윤리는 단순히 공동체의 경계를 확대하여 토양, 물, 식물, 동물, 즉 종합적으로 대지를 포함한다”(204)라고 서술한다.

땅의 윤리가 “단순히(simply)” 공동체의 경계를 확대한다고 이야기 하지만, 여기서 “단순히”라는 용어는 이 주장을 간단하게 서술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인간 윤리가 다음 단계로 진화해야 하는 당위성을 암시한다. 인류 역사상 인간 윤리의 확대 대상과 범주는, 여성과 노예 등의 경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주로 피지배층이었다. 지배층이 이들의 권리를 인정해주었지만 결국 지배층 자신의 지배 속으로 계속 한정시켰다. 레오폴드가 인간윤리 진화의 다음 단계로 자연을 칭하고 인간의 윤리 범위를 자연으로 확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연과 그 권리를 인간 세계의 범주로 한정시키지 않고 오히려 인간을 자연의 공동체로 귀속시키고 있다. 레오폴드의 “간단히 말해서, 땅의 윤리는 호모 사피엔스의 역할을 땅 공동체의 정복자로부터 그 공동체의 단순한

470 국제언어문학 제41호(2018.12.)

구성원이자 공민으로 바꾸었다”(204)라는 유명한 선언은 기존의 윤리체계를 치환 또는 전복하였다.

인간중심적 윤리 규범 및 체계에서 생태중심적 윤리 규범과 체계로 전환되는 것은 단순한 윤리의 진화 또는 확대가 아니다. 레오폴드는 지금까지 윤리 규범의 주체였던 인간을 인간의 종속물이라고 여겼던 자연으로 귀속시켰는데, 이는 인류 역사에서 볼 수 없었던 윤리 패러다임의 전환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전환은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레오폴드가 오랫동안 자연에서 사실의 관찰, 직접적인 행동, 그리고 명상을 통해 자신의 마음속으로 체화한 결과이다.

인간은 오직 생물학적 그룹의 한 구성원일 뿐이라는 사실은 역사를 생태학적으로 해석하면 밝혀진다. 인간의 많은 역사적 사건들은, 지금까지 인간의 기획 관점으로만 설명되었지만 사실은 인간과 대지 사이의 생물학적 상호작용이었다. 대지의 특성이 그 위에 사는 인간의 특성만큼 강력하게 역사적 사실들을 결정 했다. (205)

우리 동시대의 생태지역주의(bioregionalism)의 주장을 연상케 하는 위의 발언은, 인간은 자연의 우위에 존재하고 종속물로 자연을 지배해야 한다는 오래된 서구의 인간중심적 자연관과는 정면으로 대치된다.

생태지역주의는 인간 공동체의 자연 환경이 그 공동체의 사회, 문화, 정치, 경제, 그리고 외부와의 교류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면서, 인간의 삶과 사회를 생태학적 기반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생태지역주의처럼, 레오폴드는 인간 사회와 자연 생태계 사이의 상호작용이 인간의 삶을 결정했다고 생각하면서, 인간의 역사와 사건들을 생태학적으로 해석한다. 이러한 해석에서 자연은 진화과정에서 스스로의 변화를 추구하는 주체 뿐 아니라, 인간의 역사와 삶을 결정하는 더 큰 주체로 인간을 포함한다. 따라서 인간은 자연의 지배자가 아니라 자연의 한 구성원일 뿐이다. 이런 면에서 땅의 윤리는 인간의 윤리 규범을 자연에게 까지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규범의 주체와 범주를 인간에서 자연으로 전환하는 근본적인 혁명이라 할 수 있다.

4. 결론

레오폴드의 땅의 윤리는 일반적으로 인간이 자연에 가하는 행위에 대한 제약, 땅에 대한 존중, 그리고 책임 등에 관한 윤리 규범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평가는 여전히 인간중심적 사고에 머물러 있다. 땅의 윤리는 인간에게 인간이 대상과 범주를 스스로 결정하는 주체를 해체시키고 자신들이 소외시켰던 자연이라는 대상의 한 부분이라는 사고를 확인시킨다.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을 가능하게 한 땅의 윤리는 저자의 자연사와 진화론에 대한 탐구와 지식, 그리고 생태학적 인식에 기초하여 형성되었다. 자연사와 진화론 분야에서 레오폴드는 자연의 진화 과정의 정당성과 스스로 그 과정을 수행하는 자연의 주체성을 확인하였고, 인간의 윤리 기준과 체계도 시대나 사회의 변화에 상응하여 진화하고 발전해야 한다고 믿었다.

땅의 윤리는 진화론 외에도 생태학, 특히 레오폴드의 생태학적 의식과 인식에 의해서도 형성되었다. 레오폴드의 인간중심적 사고에서 생태중심적 의식으로의 전환, 「산갈이 생각하기」에 드러난 심층생태학적 의식은 그의 생태학 지식에서 비롯되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인간의 실용적인 관점에서 벗어난 자연의 존재와 운영방식에 대한 확신 그리고 인간의 인지와 표현을 넘어서는 자연의 경이로움, 고귀함, 아름다움에 대한 인식은 레오폴드로 하여금 인간은 자연의 공동체에 단지 한 부분이라는 생각에 이르게 했다. 이러한 면들은 『샌드 카운티 연감』에서 되풀이 되는 주제로서, 커트 메인스(Curt Meine)는 이 책의 주제들을 다음처럼 요약한다.

생태학적 인식(awareness)에 대한 필요성, 이러한 인식을 부여하는데 있어서 교육의 한계, 이 인식에 따라 행동하는데 있어서 경제의 제약, 진화과정에서 다음 단계로서의 땅의 윤리, 생태적 과정을 좀 더 근본적으로 이해할 필요성, 생태적 의식의 역할. (183)

472 국제언어문학 제41호(2018.12.)

『샌드 카운티 연감』에서 레오폴드는 이러한 주제들을 계속 성찰하고 내면화 하면서 새로운 생태의식과 인식을 형성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윤리 규범과 체계를 제시하였다.

일반적으로 윤리는 도덕의 문제이면서 행동을 위한 규율이 될 수 있다. 땅의 윤리는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도덕적 가치이며 인간이 자연에 가하는 인간중심적 행위 등을 제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동시에 인간의 도덕과 그 가치체계의 진화이다. 아주 비약적으로 말하자면,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가 기존의 주인과 노예 관계에서 이제는 주인이 노예의 세계의 한 부분이라는 관계라고 할 정도의 패러다임의 전환이기도 한다. 땅의 윤리는 사회, 문화적 관점에서 보면, 내쉬(Nash)의 지적처럼, 그 당시 미국 사회가 당연하게 여기던 “진보라는 개념을 근본적으로 재정의 하고” 자연에 대한 미국인들의 “특권의식과 행위들을 완전히 재구성하는”(84) 계기를 제공하였다. 어떠한 관점에서든, 땅의 윤리는 윤리 발전과정의 새로운 단계가 되었고, 또 이 단계를 바탕으로 다음 단계로 발전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본격적으로 강조되거나 시행되고 있는 ‘동물권리운동’(Animal Rights)과 ‘지구법’(Earth Law)을 예로 들 수 있다.

지구법은 자연과 생태계와의 관계에 대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지구상의 모든 자연 존재물들에게 법적 주체성을 부여하고 이 존재들이 소유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우리시대 가장 대표적인 생태시인인 인 개리 스나이더(Gary Snyder)는 『거북이 섬』(Turtle Island)의 「내일의 노래」(“Tomorrow’s Song”)에서 이러한 지구법의 핵심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20세기 중반과 후반에
미국 정부는 서서히 의무를 상실했다
미국 정부는 산 그리고 강,
나무와 동물에 투표권을
주지 않았다.

The USA slowly lost its mandate
in the middle and later twentieth century
it never gave the mountains and rivers,
trees and animals
a vote (77)

그리고 계속해서 같은 시집의 산문 「야생의 공간」(“The Wilderness”)에
서, 모든 자연물들을 “사람”으로 칭하면서 그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보장해주
지 않으면 인간에게 많은 위험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우리가 당장 해야 할 일은 다른 사람들—수(Sioux) 부족의 인디언들이 기어가는
사람들, 서있는 사람들, 날아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수영하는 사람들이라 부
른 사람들—을 정부의 의회(councils)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 그렇
지 않으면, 그들은 우리에게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킬 것이다. 그들은 지구상에
우 리가 존재하는 것에 관하여 타협의 여지가 없는 요구를 제기할 것이다.
(108)

스나이더의 주장은 인간이 자신들의 발전과 편의를 위해 자연을 무차별적
으로 파괴하면 결국은 인간의 존재도 위태롭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지구법에서 강조하는 자연에 법적 주체성을 부여하는 과정은 인간이 자연
을 대신하는 방법으로 실현되었지만, 자연의 주체성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
이다. 레오폴드가 그 당시에는 이러한 범위까지 사고를 확장하는 것에 있어서
는 한계가 있었겠지만, 그의 땅의 윤리는 자연의 주체성을 확인하고 새로운
윤리의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또한 윤리도 진화해야 한다는 레오폴드의 주장
은 또 하나의 규범의 역사를 만들어 이를 토대로 자연의 권리에 대한 지구법
이라는 새로운 윤리 규범이 탄생하게 되었다.

474 국제언어문학 제41호(2018.12.)

[Abstract]

Aldo Leopold's Evolutionary Ecological Land Ethic

Kim, Eunseong
Korea University

Aldo Leopold's A Sand County Almanac published in 1949 signaled the new
environmental philosophy and ethics. The Land Ethic which was founded on
Leopold's evolutionary, historical, and ecological perspectives shift norms of
human ethics from anthropocentric to ecocentric ethics. The ethic created a new
paradigm of ethical structures including the natural and human worlds as a
holistic One. Taking Darwin's theory of cooperation and competition as an
evolutionary process, Leopold asserts that nature is a dynamic community of
interaction and correlation between all members. The evolutionary and ecological
views lead him to believe that human beings' ethical structure can and must
evolve.

Although the land ethic is supposed to be a constraint against abusing land
and nature, it transforms a kind of master-slave relation between nature and
mankinds to rest a role of Homo Sapiens: from conqueror of nature to plain
member of it. Of course, this transformation results from Leopold's ecological
consciousness. Viewing evolutionary and ecological succession in nature,
Leopold comes to sense the natural beauty, nobility, and awe which are beyond
human perception and language. The ecological consciousness invokes respect
for nature as the subject with its own history in Leopold's heart. The land ethic
would be the neat step in a evolutionary process of human ethics and then serve
as a foundation for further ethics such as Animal Rights.

Key Words : Aldo Leopold, Land Ethic, A Sand County Almanac, Evolution,
Ecology, Ecological Consciousness, Ethical Paradigm

참고문헌

- 김은성, 「미국의 자연관과 정치관 간의 상관성의 변화—크뢰베케르, 핀초트, 스나이더를 중심으로」, 『영어영문학』 53.1 (2007): 73-97면.
- Buell, Lawrence. *The Environmental Imagination: Thoreau, Nature Writing, and the Formation of American Culture*. Cambridge: Harvard UP, 1995.
- Callicott, J. Baird, ed. *Companion to A Sand County Almanac: Interpretive and Critical Essays*. Madison: U of Wisconsin P, 1987.
- Callicott, J. Baird. "Introduction." Callicott 3-13면
- . "The Conceptual Foundations of the Land Ethic." Callicott 186-217aus
- Carson, Rachel. *Silent Spring*.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1962.
- Clark, Timothy. *The Cambridge Introduction to Literature and the Environment*. Cambridge: Cambridge UP, 2011.
- Fritzell, Peter A. "The Conflicts of Ecological Conscience." Callicott 128-153면.
- Leopold, Aldo. *A Sand County Almanac and Sketches Here and There*. Oxford: Oxford UP, 1949.
- Meine, Curt. "Building The Land Ethic." Callicott 172-185면.
- Nash, Roderick. *The Rights of Nature: A History of Environmental Ethics*. Madison: U of Wisconsin P, 1989.
- Pinchot, Gifford. *The Fight for Conservation*. New York: Doubleday, 1910. Boston: IndyPublish.com. 2005.
- Snyder, Gary. *Turtle Island*. New York: New Direction, 1974.
- Tallmadge, John. "Anatomy of a Classic." Callicott 110-127면.
- Worster, Donald. *Nature's Economy: A History of Ecological Ideas*. 2nd ed. Cambridge: Cambridge UP, 1994.

이 논문은 2018년 11월 07일 접수되어 12월 05일까지 심사받아 12월 17일 게재 확정됨.